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반도체 차익실현..순환매 속 미국증시 약보합

- 미국 증시 약보합..나스닥은 닷새 연속 하락
- 오픈AI IPO 시점 연기 검토설에 AI반도체 등 관련주 하락
- 칩 플레이션..FT “애플, 중국산 메모리 구매 타진”

Summary

미국증시 약보합 마감

미국증시는 6월 26일(현지시간) 약보합 마감. 전일 아시아 증시에 이어 이날 미국증시에서도 오픈AI의 IPO 연기 소식을 빌미로 반도체주 전반이 하락했지만 빅테크, 헬스케어, 유틸리티, 부동산, 필수소비재, 경기소비재 등이 강세를 보이는 업종별 순환매 흐름이 나타남. 초반 저가 매수가 유입돼 반등 시도를 보이기도 했던 나스닥은 대형 기술주에 대한 매물 출회를 반영해 닷새 연속 하락 마감했고 순환매 흐름 안에 반등권에 머물던 다우지수와 S&P500 지수도 마감을 앞두고 하락 전환함.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산출되는 S&P500 지수와 달리 모든 종목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이를 통해 대형주의 지수 영향력을 줄인 S&P500 동일가중지수는 이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대형 기술주 쏠림이 완화, 시장 내 자금이 비교적 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반영함.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0.09% 하락한 51,876.11에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는 0.24% 하락한 25,297.62에 거래를 마칩. S&P500 지수는 0.05% 하락한 7,354.02에 마감했고 나스닥 100 지수는 1.09% 하락했음.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 지수는 0.07% 하락.

주간으로는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가 4.6% 하락해 3주 연속 약세 흐름을 이었고 나스닥 100 지수 역시 한 주간 4.24% 하락해 3주 연속 하락. S&P500 지수도 3주간의 하락세를 이어 주간 1.95% 하락했음. 다만 다우지수는 주간 0.60% 상승하며 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해 업종별 순환매 흐름을 반영. 시카고 옵션 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 VIX는 2.54% 하락한 18.41에 마감.

(다우지수 -0.09%/ 나스닥 -0.24%/ S&P500 -0.05%/ 러셀2000 -0.07%)

오픈AI, IPO 연기 검토: AI 테마 차익실현 발미

전일 아시아 시장에서 반도체주 급락을 야기한데 이어 이날 미국 증시에서도 반도체주 하락의 직접적인 이유가 된 이슈는 오픈AI의 상장 시점 연기 검토설.

전일 마감 이후 뉴욕타임스는 오픈AI 관련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 3명을 인용해 지난 5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공개 IPO 신청서를 제출했던 오픈AI가 당초 오는 9월로 알려졌던 상장 시점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함. 뉴욕타임스는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가 최근 투자은행/법률 자문사에 기업가치 1조 달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를 전달했다고 보도. 이에 자문사는 1조 달러 기업가치를 받기 위해 상

장 시점을 내년으로 미루거나 목표 기업가치를 낮춰 올해 안에 상장하는 두 가지 옵션을 제시했으며 올트먼은 기업가치를 낮추는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스페이스X 상장 이후 주가 흐름이 다소 부진해 대규모 신규 상장을 진행하기에는 시장 상황이 다소 부담스럽다는 점, 그리고 '난장판'이라는 평가까지 받은 오픈AI의 재무 상태 등이 이른 상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재무상태에 대해서는 다만 수익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투자 규모가 이를 웃돌아 아직 안정적인 흑자 구조를 갖추지는 못한 상황이며 상장 이후 단기 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기보다는 비상장 상태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음.

한편 2022년 첫 지피티 출시와 함께 AI 열풍을 촉발한 기업인 오픈AI의 IPO 연기 검토 소식은 관련주 움직임에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로, 이 날 AI 생태계 확장의 가장 직접적 수혜주로 꼽히는 반도체주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됨. 실제 JP모건 등 다수의 분석 기관은 이날 IPO 연기와 자본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의 지연은 AI 기업들의 인프라 투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으며 실제 AI 인프라 투자 속도를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음.

6월 미시간대 소비심리 지수: 뚜렷한 개선세

이날 발표된 미시간대 6월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는 49.5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 50은 하회했지만 5월 수치 44.8에 비해서는 10.5%나 상승해 소비심리 전반의 회복을 가리킴.

구성 항목 각각을 봐도 현재 경제 여건 지수가 47.7로 집계돼 전달의 45.8에서 1.8포인트 개선됐고, 향후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는 50.7로 전달 44.1에서 6.6포인트, 무려 15% 개선됨. 미시간대는 휘발유 가격 상승이 완화되면서 5월 대비 소비자 심리의 광범위한 개선이 나타났다고 설명. 하지만 전년 동월 수준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함.

함께 발표되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6%로 전달 수치 4.8%에 비해 0.2%p 하락.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3.3%로 전달 3.9% 대비 0.6%p 하락. 다만 기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연준의 인플레 장기 목표 2% 대비 크게 높은 3~4%를 유지하고 있음.

미국-이란 공습 재개

주말 사이 미국과 이란은 국지적 공습과 함께 날 선 '메시지'를 주고받아 중동 지역 긴장 재고조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킴.

지난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지나던 화물선을 공습했고 미국은 이를 휴전 협정 위반으로 규정하며 현지시각 27일, 이란의 정찰 시설과 통신 시스템 등에 대한 공습을 단행함. 현지시각 28일, 이란은 이에 맞서 쿠웨이트와 바레인 등에 위치한 8개 미군 시설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으며 이란혁명수비대(IRGC)는 성명을 통해 "최근 미군의 침공에 단호히 응답했다"고 밝힘. 혁명수비대는 IRGC 해군이 규정을 어긴 선박을 단속한 것을 빌미

로 미군이 이란 해안 감시 거점 5곳을 먼저 공격했다며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대한 관리 권한은 이란에 있으므로 앞으로 규정 위반 선박에 대한 대응은 보다 강경해질 것이라고 주장. 나아가 “적은 휴전 위반이 MOU 1항에 반하는 것이며 모든 과정의 전면적 종단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은 절대로 교훈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우리가 더는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되는 시점이 올 수 있으며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미군 중부사령부도 “미군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치명적 타격 능력을 유지하며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힘.

종전 MOU 합의 열흘이 지나면서 다시 재개된 양측의 공습은 결국 임시 휴전 협정의 표현이 모호한데 따른 결과라는 시각. MOU에는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미래 관리 방안을 함께 정립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이는 이란 정부에 공식적인 호르무즈 해협 관리 역할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MOU 체결 당사자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 등의 비교적 온건파로 분류되는 인물들이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권을 갖고 있는 세력은 강경파인 이란혁명수비대(IRGC)라는 점도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해석.

이란으로서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에 휘둘리고 있다는 국내외 비판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이란의 지속적인 공격을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는 입장. 때문에 향후 양측의 긴장은 다시금 고조, 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임.

다만 오늘(한국 시각 6월 29일)오전 5시를 조금 넘긴 시각, 미국 인터넷 매체 약시오스가 미국과 이란이 공격 중단에 합의했으며 내일 카타르에서 회담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보도, 일단 급한 불은 끈 것으로 보임.

FT “애플, 미 정부에 중국산 메모리 사용 승인 신청”

주말 메모리 반도체 업계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이슈가 있었음. 파이낸셜 타임스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 지난주 애플은 AI 인프라 투자 확대의 영향으로 수급이 어려워지며 메모리 가격이 전례 없는 속도와 정도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맥북과 아이패드 등의 소비자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파이낸셜 타임스는 애플이 이 결정을 공개하기 한 달 전쯤 미 상무부와 접촉해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 구매를 타진했으며 현재 정부 당국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함. 중국 등으로 공급처를 다변화해 비용 압박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읽히며 구체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구매를 추진하는 중국 업체는 미 국방부가 중국 군사기업 명단, 이른바 1260H에 포함시킨 중국 대표 디램 제조사,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CXMT)로 알려짐. CXMT는 아직 상무부의 수출 통제 명단에 포함되진 않았기

에 애플이 CXMT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나 애플이 CXMT로부터 칩을 구입한다면 미국 기업으로서는 그 자체로 정치적 리스크를 안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실제 파이낸셜 타임스는 “애플이 중국 군사기업과 협력한다면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는 미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 존 몰레나 위원장의 발언을 전하기도 함. 때문에 애플이 실제 중국 메모리 구입에 성공하게 될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이 시도가 성공하게 될 경우 기존 공급업체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기존 메모리 3사(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에 대한 가격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는 향후 메모리 업체들의 가격 전망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익 실현성 매도가 본격화된 미국 반도체 업종 주가에, 그리고 메모리 업체 이익 비중이 절대적인 수준인 한국 증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음.

특징종목

오픈시 상장 연기 검토설: 반도체주 약세/소프트웨어 반등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29% 하락했고 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도 모두 하락하는 등 반도체주 약세가 두드러진 하루. 당초 올해 9월쯤 IPO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던 오픈시가 상장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AI 관련 기술주, 특히 반도체주 투자심리가 냉각됨. 오픈시의 재무상태에 대해 엉망진창이라는 폭로가 나왔고 AI 서비스의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한 가운데 최근 상장한 스페이스X의 주가가 급등 후 급락해 상장일 시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 그리고 오픈시가 기업 가치를 예상보다 덜 평가받을 가능성을 감안해 상장 연기를 검토할 만큼 시장 내 유동성 환경이 그리 녹록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모두 관련 보도 이후 투심이 급격히 냉각된 이유로 꼽힘.

전일 깜짝 실적 발표 이후 급등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6.69%), 샌디스크(-10.46%), 시게이트 테크놀로지스(-12.24%), 웨스턴 디지털(-13.17%) 등의 메모리, 스토리지 관련 주 낙폭이 컸고 이외 브로드컴(-3.67%), 엔비디아(-1.64%), 인텔(-3.42%), 에이알엠 홀딩스(-3.87%), 퀄컴(-7.57%), AMD(-2.06%), KLA(-3.93%),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6.16%), 램 리서치(-5.66%), 마벨 테크놀로지(-5.15%) 등 반도체주 전반이 적지 않은 폭 하락. 아날로그 반도체 업체 온 세미컨덕터(-23.66%)는 약 70억 달러 규모의 전액 주식 교환 방식으로 시냅틱스(-3.68%)를 인수하는데 합의했다는 소식에 재무적 부담 등을 반영하며 급락함.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가 대비 약 7% 이상 하락한 가운데 반도체주 가운데에도 사상 최고가 대비 낙폭이 20% 이상으로 벌어져 기술적 약세 구간에 진입한 종목들이 포착됨. 에이알엠 홀딩스의 고점 대비 낙폭이 27% 가량으로 크고, 브로드컴과 마벨 테크놀로지 역시 각각 26%, 20% 가량의 고점 대비 낙폭을 기록해 기술적 약세 구간에 진입해 있음. 엔비디아와 시게이트 테크놀로지의 고점 대비 낙폭은 각각 19%, 17%로 기술적 약세 구간 진입을 앞두고 있음.

한편 이날 반도체주 전반의 약세를 반영해 VANECK SEMICONDUCTOR ETF(SMH)(-3.97%), ISHARES SEMICONDUCTOR ETF(SOXX)(-5.64%), ROUNDHILL MEMORY ETF(DRAM)(-6.52%), INVESCO PHLX SEMICONDUCTOR ETF(SOXXQ)(-5.56%) 등

반도체 대표 ETF들도 일제히 5% 내외 하락세를 기록함.

이와 함께, 오픈시 상장 대표 주관사로 알려진 골드만삭스(-4.27%)와 모간스탠리(-4.08%) 역시 여타 금융주 대비 크게 하락.

다만 이날 AI 반도체 관련주가 AI 인프라 투자 확대 지연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하락한 반 작용으로 AI 확산으로 사업 모델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며 부진했던 소프트웨어주는 반등. 세일스포스(+5.45%), 서비스나우(+9.85%), 데이터 도그(+8.52%), 어도비(+4.82%), 인튜이트(+4.96%), 오토데스크(+3.44%), 워크데이(+9.18%) 등. BNP파리바에서 액센추어(+2.51%)의 성장 리스크를 지적하며 목표주가를 하향했지만 이날은 업종 전반 상승 분위기가 개별 종목 악재성 이슈를 압도함. IBM(+5.17%), 가트너(+6.58%) 등도 함께 상승.

전일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와 스토리지 가격 급등을 반영해 아이패드와 맥북 등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6% 이상 급락했던 애플(+3.14%)도 이날은 반등. 애플과 함께 메모리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XBOX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던 마이크로소프트(+5.71%)도 반등.

순환매: 헬스케어 업종 +3.16%

최근 뚜렷한 업종별 순환매 양상에서 단연 돋보이는 업종은 헬스케어 업종. 이날도 3.16% 상승해 전업종 중 가장 강하게 상승함. 업종 내에서도 일라이 릴리(+7.13%), 존슨 앤드 존슨(+3.99%), 애브비(+4.20%) 등의 제약 바이오 종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상승세를 주도했으며 유나이티드 헬스(+2.98%), 엘레반스 헬스(+2.03%) 등의 보험주, 스트라이커(+5.25%), 텍스컴(+2.17%), 메디트로닉(+0.57%) 등의 의료 기기 관련주, 그리고 아이큐비아(+2.53%), 다나허(+1.54%),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1.44%) 등의 진단 관련주와 버텍스 파마슈티컬스(+2.32%), 모더나(+12.59%),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2.06%) 등의 바이오 기업들도 일제히 상승. 특히 오름폭이 컸던 모더나(+12.59%)의 경우 이날 급등으로 약 2년만의 최고 수준에 근접했는데, 이는 전일 있었던 인베스터 데이에서 모더나가 회사의 첫 체내 CAR-T 프로그램을 공개한 데 따른 시장의 긍정적 반응으로 읽힘.

스페이스X, 다음달 7일 나스닥 100 지수 편입

스페이스X(+0.15%)가 다음달 7일부터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될 예정. 나스닥 100지수는 나스닥에 상장된 비금융 기업 중 시총이 큰 100개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로 편입 비중은 1% 미만으로 예상. 원래 신규 상장 기업이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되려면 최소 3개월의 관찰 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나스닥은 지난 5월부터 15거래일만에 지수에 편입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 중. 스페이스X가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됨으로써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같은 인덱스 펀드들은 7월 6일 마감 후부터 스페이스X에 대한 매수를 시작할 수 있음. 지수 편입에 따른 패시브 자금 유입은 고평가 논란 속에 상장 직후 급등분을 모두 되돌린 스페이스X에 수급적 기대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국제유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귀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 사이 종전 합의 이후 공급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소식들이 속속 전해지는 가운데 이날 하루만의 약세 전환으로 낙폭을 확대, 전쟁 발발 이전 수준으로 회귀함. 전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지나던 화물선이 이란군의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에 긴장감이 높아졌지만 특별히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포착되지 않아 유가는 다시 하락폭을 확대함. 여기에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걸프만 라스타누라항에서 원유 선적을 재개했다는 로이터 등의 보도가 나와 공급 정상화에 대한 낙관론에 힘을 실었음.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3.74% 급락한 배럴당 69.23달러에 거래를 마쳐 이란 전쟁 발발 하루 전인 지난 2월 27일 이후 4개월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70달러를 하회함. 브렌트유 8월물은 4.34% 하락한 배럴당 71.99달러에 마감해 지난 2월 27 종가 72.48달러보다도 낮아짐.

이날 국제 금가격은 미국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영향으로 이틀 연속 상승했음. 시카고 파생상품 거래소 그룹 CME 산하 금속선물거래소 COMEX에서 8월 인도분 금선물은 전장 결제가 대비 1.26% 상승한 트로이 온스 당 4,098.50달러를 기록, 장중 4천달러를 하회하기도 했지만 4천달러대 지지력을 확인하며 반등. 7월 인도분 은 선물 가격도 1% 가량 상승해 온스당 59달러대를 기록.

달러 가치 이틀째 하락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미국 달러화 가치도 2거래일 연속 하락. 다만 장 후반 낙폭을 축소해 전약 후강의 흐름을 보임.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전장 대비 0.07% 하락한 101.357을 기록. 유로-달러 환율은 이번주 소비자물가지수 공개를 앞두고 유럽의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을 수 있다는 관측에 후반 상승폭을 줄였으나 0.01% 상승. 달러-엔 환율은 전일 대비 0.021% 하락해 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을 반영.

전일 서울 외환시장 주간거래에서 장 후반 정부 개입 추정 물량에 낙폭을 확대해 1,532.00원에 마감한 달러/원 환율은 이날 야간 거래에서 이보다 3.80원 상승한 1,535.80원에 마감. NDF 달러/원 환율은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0.55원)를 감안하면 전일 종가 대비 4.45원 상승한 1,535.90원에 마감.

국채금리 혼조

미국 국채 금리는 단기물이 소폭 하락하는 한편 장기물은 상승하는 등 대체로 움직임이 제한적인 가운데 혼조세를 보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완화됐지만 이날 나온 연준 인사의 발언 등은 여전히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을 자극해 국채 금리 하락에 저항 요인이 됨.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는 3.1bp 하락한 4.0921%를 기록했고 벤치마크인 10년물 금리는 2.4bp 하락한 4.3686%를 기록. 만기가 가장 긴 30년물 국채 금리는 0.3bp 상승한 4.8640%를 기록함. 이날 10년물과 2년물 금리 차이는 전 거래일 대비 0.72bp 확대됨.

시카고상품거래소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이날 연준이 오는 12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전장 대비 상승한 22% 내외로 반영했으며, 연내 한 번 금리 인상 가능성은 41%, 두 번 인상 가능성은 27%대를 기록함. 세 번 이상 인상할 가능성도 8%대로 집계됨.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